

사과, 능금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 - 林檎, 柰, 蘋果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

金鍾德 高炳熙*

ABSTRACT

The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the Apple and Neung-keum

*Gim Jong-Dug, Koh Byung-hee**

* Dept. of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We can have the following summary regarding the apple, what is called, 'the king of fruits' through the study of bibliographic science.

1. Im-keum(林檎) could be translated into 'Neung-keum'(능금)(*Malus asiatica Nakai*), Nea(柰) into 'Meut'(몯), and Bin-gwa(蘋果) into 'apple'(사과)(*Malus pumila Mill*), and Bin-gwa was reformed from Meut. Thus, Neung-keum is similar to the apple, yet it is different each other.

2. The imported year of the apple which was reformed from Meut(몯) from China was in 1654 whereas Neung-keum(능금) is a native kind.

3. The apple inscribed by Sa-gwa(沙果) on the present korean language dictionary should be changed into Sa-gwa(楂果, 查果). The Sa-gwa(沙果) is used as another name of Neug-keum(능금) in China.

4. We can find the bibliographic record that an apple or Neug-keum(능금) had been used as a substitution of San-sa(山楂) to be used to Soe-um-in(小陰人).

5. The apple and Neug-keum(능금) are recommended to the Soe-um-in(少陰人) as a food for Yang-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ran-ji-gi(陽煖之氣) to be served as Bo-myung-ji-ju(保命之主) to Soe-um-in(少陰人).

Key word : Apple(沙果, 楂果), Neug-keum(능금), Sasang(四象), Nea(奈), Constitutional dietary treatment(체질식이)

1. 서론

그리스 신화에 '사과는 꿀맛이 나고 모든 병을 낮게 한다.'라 하였고, 미국의 민간요법에서는 사과가 '과일의 왕'으로 꼽히기도 한다.¹⁾ 산성화된 인체를 중성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과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상 상태가 특이한 대구와 冷寒한 중북부에 많다.

현재 사과의 원산지는 유럽 코카서스 북방지대로 알려지고 있으며, 스위스 湖棲時代의 유물 중에도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재배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²⁾ 소화를 돕는 과일 중의 하나인 사과³⁾는 전세계적으로 소비량이 늘고 있으나 한의학적 시각에서의 연구가 미흡한 현실이다. 특히 四象醫學은 체질에 따른 음식섭생을 정신과 육체의 균형 및 조화라는 입장에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며⁵⁾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四象醫學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능금과 사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능금을 재래종 사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능금(林檎)과 아울러 재래종 사과인 奈와 개량종 사과인 蘋果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개량종 사과인 蘋果가 도입되는 과정을 살

펴봄으로서 현재 사과를 한문으로 沙果로 표기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한문인 楂果(査果)⁶⁾로 수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少陰人의 陽煖之氣를 도와주는 山楂⁷⁾의 대용품으로 사과가 사용되었음을 문헌학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서 사과와 능금이 少陰人 식품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능금과 사과의 명칭에 대하여

현재 능금을 재래종 사과로 인식하거나 사과의 사투리로 이해하고 있으나⁸⁾ 능금(*Malus asiatica* Nakai)과 사과(*Malus pumila* Mill)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식물이다.⁹⁾ 또한 사과는 재래종 사과인 奈와 개량종 사과인 蘋果로 구분되어 지기 때문에 능금(林檎), 奈, 蘋果를 비교 검토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맛이 좋기 때문에 못 짐승들이 모여들었다는 뜻이 있는 능금은 한문으로 林檎, 또는 來禽이라 한다.¹⁰⁾ 『本草綱目』(1578)에 '文林郎은 渤海間에서 태어났다. 나무가 황하에 떠서 내려오는 것을 文林郎이 습득하여 심었기 때문에 文林郎果라 한다.'¹¹⁾라 하여 능금의 異名이 文林郎果임을 밝히며 원산지를 渤海, 즉 우리 나라를 지칭하고 있다.

1) Jean Carper : 안덕균역, 『약이 되는 먹거리』, 248-252쪽, 1993.
 2)金正浩의 : 『三訂 果樹園藝各論』, 19쪽, 1995.
 3)沈相龍 : 『漢方食療解典』, 452쪽, 1976.
 4)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四象醫學』, 240쪽, 1997.
 5)李義柱의 : 「食品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7권 1호, 1995.
 金芝英의 : 「體質別 食品分類의 妥當性과 活用에 관한 小考」, 『사상의학회지』, 7권 1호, 1995.

6) 楂는 檜(楡)와 통용하므로 査果라 표기할 수도 있다. (査果 = 楂果)
 7) 山楂라 쓰기도 하는데 서로 통용한다.
 8)金正浩의 : 『三訂 果樹園藝各論』, 19-25쪽, 1995.
 9)李昌福 : 『大韓植物圖鑑』, 1982.
 10)李時珍 : 『本草綱目』, 卷三十, 「林檎」, 時珍曰 案洪玉父云 此果味甘 能來衆禽於林 故有林檎來禽之名.
 11)李時珍 : 『本草綱目』, 卷三十, 「林檎」, 麗器曰 文林郎生渤海間云 其樹從河中浮來 有文林郎拾得種之 因以爲名.

우리 나라 문헌으로는 『鷄林類事』(1096)에 '林檎은 悶子訃', 『高麗圖經』(1124)에 來禽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의 능금재배역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¹²⁾ 訓民正音が 창제된 이후 우리 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訓蒙字會』(1527)에 林檎을 '닝금'이라 표기하였고,¹³⁾ 『東醫寶鑑』(1613)에 표기된 '넙금'¹⁴⁾의 단계를 거쳐 『廣才物譜』의 '능금'¹⁵⁾이 되었다. 즉 林檎은 '悶子訃 → 닙금 → 넙금 → 능금'으로의 한글표기가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표1> 참고)

재래종 사과인 柰에 대한 문헌으로는 『鄉藥集成方』(1433)에 '柰(벗)', 『訓蒙字會』에 '榛(멧), 頻婆(큰 림금)¹⁶⁾, 『東醫寶鑑』에 '柰子(멧, 농비)¹⁷⁾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柰는 '벗 → 멧 → 멧'으로의 한글표기가 변해왔음을 알 수 있다. 『海東農書』(1799)에 柰를 '사과'로 표현하고 있어 이전의 표기인 '멧(벗, 멧)'과는 다르게 쓰고 있다. 또한 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柰는 頻婆라고도 하는데 林檎과는 같은 무리이지만 품종이 다르다'¹⁸⁾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本草綱目』의 내용¹⁹⁾을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서 柰의 개량종인 蘋果가 1654년 우리 나라에 수입되었지만 이를 잘못 이해하여 나타난 실수라 할 수 있다.

개량종 사과인 蘋果는 재래종 사과인 柰를 개량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羣芳譜(1640)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²⁰⁾ 이 蘋果가 우리 나라에 도입되는 시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다. 『南岡漫

錄』에 의하면 '林檎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매우 큰 사과(査果)는 신맛과 짙은 맛(酸澁)이 없고 담백하면서 달다(淡甘). 1654년 麟坪大君(1622-1658)이 중국으로 사신 갔을 때 사과나무를 수레에 실어 얻어와 심으니 비로소 열매가 맺었다'²¹⁾라 하였고, 『松南雜識』(1855)에서는 '우리 나라에는 원래 사과(蘋果)가 없었다. 東平尉 鄭公(1648-1723)이 중국으로 사신 갔을 때 사과가지 를 얻어오니 비로소 퍼지게 되었다.'²²⁾라 하였다. 『五洲衍文長箋散稿』(1850)에서도 麟坪大君과 東平尉 鄭公이 가져왔다고 서술된 것²³⁾으로 미루어 여러 경로로 수입된 것을 알 수 있으나 孝宗 재위 기간(1649-1659)중 중국에서 수입된 것만은 확실하다.²⁴⁾ 이후 農書로서는 처음으로 『山林經濟』(1715)에 사과(楂果, 査果²⁵⁾)의 재배법이 소개되어 있어²⁶⁾ 이 당시 사과가 널리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개량종 사과(蘋果)에 대한 한문표기를 우리 나라에서는 楂果(사과)라 하였는데 楂果는 중국에 없는 우리 나라만의 한문이다(<표1>, <표2> 참조). 발음은 같지만 沙果는 능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訓蒙字會』에 '檎(능금)은 俗稱 沙果라 한다. 또한 小林檎이라 한다.'²⁷⁾라 하여 沙果는 능금의 異名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당시 중국에서 나온 本草品彙精要(1505)의 '林檎(능금)의 異名은 沙果, 花紅이다'²⁸⁾라는 설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도 중국에서는 林檎(능금)의 異名으로

12) 李盛雨 : 『韓國食品文化史』, 179쪽, 1997.

13) 崔世珍 : 『訓蒙字會』, 「檎」, 닙금 금.

14) 許浚 : 『東醫寶鑑』, 「林檎」, 넙금 性溫味酸甘無毒 止消渴 治霍亂肚痛 消痰止痢

15) 『廣才物譜』, 「林檎」, 능금 來禽 文林郎果 花紅 檎子.

16) 崔世珍 : 『訓蒙字會』, 「榛」 멧내 通作柰, 「頻」 큰림금빈(木변이 있음), 「婆」 큰림금파(木변이 있음)

17) 許浚 : 『東醫寶鑑』, 「柰子」, 멧 或云농비 性寒 (一云冷) 味苦 (一云苦澁) 無毒 益心氣 和脾 補中焦諸不足氣.

18) 徐浩修 : 『海東農書』, 「柰」, 사과 柰亦名頻婆 與林檎 一類二種也.

19) 李時珍 : 『本草綱目』, 「柰」, 時珍曰 柰與林檎 一類二種也.

20) 李盛雨 : 『韓國食品文化史』, 174-182쪽, 1997.

21) 『南岡漫錄』, 査果形如林檎 而大則數倍 且味淡甘 不帶酸澁氣 孝廟甲午乙未年間 麟坪大君使燕 得其樹載車以還 將待其結實而進之.

22) 趙在三 : 『松南雜識』, 「蘋果」, (前略) 我國古無蘋果 東平尉 鄭焜嵩奉使 得接枝而還國中.

23) 李圭景 : 『五洲衍文長箋散稿』, 「柰頻婆檎林檎端謁」, (前略) 麟坪大君 奉使入燕 始取其種而來 仍爲繁植 或曰 東平尉鄭公.

24) 李春寧 : 『韓國農學史』, 103쪽, 1994.

25) 『山林經濟』는 刊本에 따라 일부 틀릴 수가 있다. 三木榮 소장 본에는 楂果, 吳漢根 소장본에는 査果로 되어 있으나 실상 楂와 査는 같은 글자로 통용된다.

26) 洪萬選 : 『山林經濟』, 卷之二, 「種楂果」 「種林檎」

27) 崔世珍 : 『訓蒙字會』, 「檎」, 닙금금 俗呼沙果 又呼小林檎 曰花紅 一年再實.

28) 李盛雨 : 『韓國食品文化史』, 177쪽, 1997.

<표1> 林檎, 柰, 楂果의 변천

	<i>M asiatica</i> Nakai	<i>M pumila</i> Mill	
鄕藥集成方(1433)	林檎 = 능금	柰 = 벗	
訓蒙字會(1527)	檎 = 능금, 沙果, 小林檎, 花紅	柰 = 벗, 柰, 檎 = 큰 립금. 檎 = 큰 립금.	
東醫寶鑑(1613)	능금	먼 或云 능비	
山林經濟(1715頃)	林檎		楂果, 查果*
增補山林經濟(1766)	林檎	벗 或云 능비	楂果
海東農書(1799)	林檎 = 능금	柰 = 사과, 頻婆	
廣才物譜(미상)	능금 來禽 文林郎果 花紅 檎子	사과, 沙果, 日給, 頻婆	
園閣叢書(1815頃)	능금		사과 楂果
杏菴志(1825)			蘋果
林園經濟志(1827)	林檎	柰	蘋果, 楂果
農政會要(1830)	林檎	俗稱 벗 非	蘋果 俗名 楂果
五洲衍文長箋散稿(1850)	林檎	柰 = 벗, 頻婆	楂果
松南雜識(1855)	林檎 = 沙果	柰	蘋果 = 沙果
醫宗損益(1867)	능금		
本草精華(미상)	林檎	柰實	
良方金丹(미상)	능금		

* 三木榮 소장본(필사본)에는 楂果, 吳漢根 소장본에는 查果로 되어 있음.

沙果를, 蘋果(사과)의 異名으로는 柰(재래종 사과)를 사용하고 있으니²⁹⁾ 沙果는 능금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개량종 사과인 蘋果가 우리 나라에 도입될 당시 발음은 같지만 능금을 지칭하는 沙果 대신 새로운 한자인 楂果를 사용함으로써 명칭의 혼란을 피하려고 하였다. 『林園經濟志』(1827)에서도 '사과(楂果)를 俗稱 沙果라 하는데, 이는 楂와 沙가 발음이 같아서 착각하기 때문이다.'³⁰⁾라 하여 사과는 沙果가 아닌 楂果로 써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발음이 같기 때문에 楂果가 아닌 沙果

로 잘못 표기하기도 하였다. 『松南雜識』에 '蘋果를 우리 나라에서는 沙果라 한다. 중국에서의 沙果는 우리 나라의 林檎(능금)에 해당된다.'³¹⁾라 하였다. 중국에서의 沙果는 능금(林檎)이고 우리나라의 沙果는 개량종 사과(蘋果)이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옳지만 개량종 사과도 沙果로 잘못 표기하고 있어 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표1> 참조)

한편 『朝鮮王朝實錄』에 沙果의 기록이 成宗 14년(1483)³²⁾, 成宗 15년(1484)³³⁾, 純祖 1년(1801)³⁴⁾

29) 新文豐出版公司 : 『新編中藥大辭典』, 中華民國71년.
30) 徐有渠 : 『林園經濟志』, 「蘋果」楂果俗稱沙果 蓋因楂沙音同而訛也.
31) 趙在三 : 『松南雜識』, 「蘋果」, 燕岩曰 我國謂之沙果也 中國所稱沙果 卽我國林檎也.

31) 趙在三 : 『松南雜識』, 「蘋果」, 燕岩曰 我國謂之沙果也 中國所稱沙果 卽我國林檎也.
32) 『朝鮮王朝實錄』, 成宗 14年 八月 戊寅, 遣同知中樞府事韓儼(中略) 沙果十九箇.
33) 『朝鮮王朝實錄』, 成宗 15年 八月 戊寅, 聖節使(中略) 沙果十九箇.
34) 『朝鮮王朝實錄』, 純祖 元年 正月 乙巳, 敎曰藥房別卜定 有(中略) 沙果.

<표2> apple에 대한 中國名의 변천³⁵⁾

	林檎	柰	蘋果
學名	<i>Malus asiatica</i> Nakai	<i>Malus pumilla</i> Mill	<i>Malus pumilla</i> Mill
上林賦(기원전 2세기)		柰	
西京雜記의 上林苑	林檎	柰	
孔子家語		萍實(蘋婆)	
廣志(晉代)	里琴, 理琴	柰(蘋婆)	
王羲之帖(晉代)	來禽		
洽聞記(唐代)	文林郎果(林檎, 蘋婆果)		
名醫別錄(漢末)	林檎(小, 圓)	柰(大, 長)	
本草品彙精要(1505)	林檎 = 沙果, 花紅		
學圃餘疏(1587)	花紅, 古林檎		
羣芳譜(1640)	林檎	柰	蘋果
漢清文鑑(1708)	沙果	檳子	蘋果
授時通考(1737)	林檎(來禽, 文林郎果)	柰(蘋婆)	蘋果(蘋婆)
植物名實圖考(1848)	沙果 = 林檎(小)		蘋果 = 柰(大)
20세기초		中國蘋果	西洋蘋果
菊池의 조사(1930)	沙果 = 林檎	柰 = 檳子	蘋果
中國藥膳學(1985)	林檎 = 花紅		

등 3번 나온다. 成宗 14년, 15년에 나오는 沙果는 개량종 사과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 1654년 이전이므로 '사과'가 아닌 '능금'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訓蒙字會』에서 능금(林檎)의 異名으로 沙果를 용하고 있기 때문³⁵⁾에 이 당시의 沙果는 능금을 지칭하고 있었다. 또한 중국에서의 기록을 보아도 개량종 사과(蘋果)가 최초로 기록된 것이 『羣芳譜』(1640)이기 때문에 成宗당시에는 우리 나라에 개량종 사과(植果)는 없는 것이 확실하다. 참고로 <표2>의 도표를 통하여 중국에서의 林檎(능금), 柰(재래종 사과), 蘋果(개량종 사과)의 문헌상 표기방법을 살펴보면, 林檎과 柰의 재배역사는 오래되었고 柰의 개량종인 蘋果(개량종 사과)는 1640년에 최초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우리 나라에 개량종 사과가 전래된 시기를 짐작하게 된다. 『純祖實錄』에 나오는 '沙果'는 개량종 사과가 도입된 이후이기 때문에 개량종 사과를 지칭하고 있는 지, 아니면 능금을 지칭하고 있는 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³⁶⁾

개량종 사과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 이래 능금의 異名인 沙果와 언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植果를 표기해 왔지만, 최근 『우리말 큰사전』(1947)³⁷⁾에 沙果라 잘못 기재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국어사전³⁸⁾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다. 최근에 나

35) 崔世珍 : 『訓蒙字會』, 「檎」, 능금 俗呼沙果 又呼小林檎 白花紅一年再實.

36) 李盛雨 : 『韓國食品文化史』, 178쪽, 1997, 재인용.

36) 李盛雨 : 『韓國食品文化史』, 178쪽, 1997, 재인용.

37) 한글학회 : 『우리말 큰사전』, 사과(沙果), 1947.

사과는 능금나무(林檎)의 서양개량종이라 서술하고 있지만 능금이 아니라 멧(柰)의 개량종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38) 李崇寧 : 『삼화학습국어사전』, 1974.

李熙昇 : 『民衆 옛센스 國語辭典』, 1975.

李崇寧 : 『뉴에이스 國語辭典』, 1989.

申琦澈의 : 『새 우리말 큰사전』, 1990.

은 『우리말 큰사전』(1992)³⁹⁾에 사과에 대한 문으로 沙果, 楂果를 동시에 기재한 것은 그나마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라 다행스럽다. 하지만 사과의 한문표기로 沙果가 아닌 楂果로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訓蒙字會』에서 沙果는 능금(林檎)의 異名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도 沙果는 능금을 가리키고 있다.

둘째, 개량종 사과를 일부 『廣才物譜』같은 책에서 沙果로 잘못 기재하고 있지만 『山林經濟』, 『增補山林經濟』, 『閨閣叢書』, 『林園經濟志』, 『農政會要』, 『五洲衍文長箋散稿』 등 대부분의 책에서 楂果로 표기하고 있다.

셋째, 『林園經濟志』에 발음은 같지만 沙果와 楂果를 혼동하지 말고 楂果로 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松南雜識』에 중국에서의 沙果는 우리나라의 능금(林檎)에 해당되므로 우리나라의 사과와 다르다고 하였다.

다섯째, 『우리말 큰사전』(1947)에 沙果로 기재하면서 설명하기를 '사과는 능금나무(林檎)의 서양개량종'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사과는 능금(林檎)이 아닌 멧(柰)의 개량종이기 때문에 때문이다.

여섯째, 일부 『우리말 큰사전』(1992)같은 책에서 沙果와 楂果를 동시에 기재하고 있음은 沙果로 잘못 표기했음을 일부 시인하는 것이다.

일곱째, 푸른 숲 속에 있는 붉은 사과열매는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는 듯한 기상이 있기 때문에 아침(旦)의 나무(木)라는 뜻의 楂는 사과를 형상화 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이다. 또한 少陰人 약재인 山楂의 대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하니 楂果가 적절한 표현이다.⁴⁰⁾

2. 능금(林檎)과 사과(柰, 蘋果)의 차이

柰의 개량종인 蘋果(사과)가 나오는 『羣芳譜』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중국의 『本草綱目』과 우리나라의 『東醫寶鑑』에서의 林檎과 柰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3>, <표4>와 같다.

<표3> 『本草綱目』에서의 林檎과 柰의 차이점

	林檎(능금)	柰(멧)
異名	來禽, 文林郎果	頻婆
형태	柰之小而圓者	大而長者
性味	酸甘溫 無毒	苦寒 有小毒 (甘無毒)
主治	下氣消痰	補中焦諸不足氣 和脾
적용증	癍亂吐瀉 消渴者宜食之 療水穀痢洩精 小兒閃癖	卒食飽氣壅不通者 嚙汁服 益心氣 耐飢 生津止渴
다량 복용시	多食令人百脈弱	多食令人肺癰腫脹 有病入 尤其
附方	水痢不止 小兒下痢 小兒閃癖	

<표4> 『東醫寶鑑』에서의 林檎과 柰의 차이점

	林檎(능금) = 來禽	柰子(멧 或云능비)
형태와 熟期	其樹似柰樹 實形圓如柰 六 月七月熟	似林檎而小
性味	性溫 味酸甘(味苦澁) 無毒	性寒 (一云冷) 味苦 (一 云苦澁) 無毒
主治	止消渴 治霍亂吐瀉 消痰止 痢	益心氣 和脾 補中焦諸不 足氣
다량 복용시	閉百脈 令人好睡 發痰 生 癆瘵	多食令人脈
熟期の 정도	半熟者 味苦澁 故入藥治病 爛熟則無味矣	

39) 한글학회 : 『우리말 큰사전』, 사과 - 沙果, 査果, 2037쪽, 1992.

40)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山楂와 사과와의 관계를 통하여 뒤에 설명하고 있다.

<표3>, <표4>를 비교 검토하면 형태에 있어서 『東醫寶鑑』에 ‘柰는 林檎(능금)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작다.’⁴¹⁾라 하였는데 이는 『本草綱目』의 ‘柰는 林檎(능금)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크다.’⁴²⁾, ‘時珍이 말하기를 林檎은 柰보다 작고 둥글다.’⁴³⁾의 내용과 다르다.

『鄉藥集成方』의 ‘2종류가 있는데 크고 길은 것이 柰이고 둥근 것이 林檎이다.’⁴⁴⁾, 『訓蒙字會』의 ‘俗稱 頻婆(柰의 異名) 열매는 林檎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크다.’⁴⁵⁾, 『欽定授時通考』의 ‘柰의 줄기와 잎이 林檎과 비슷하지만 열매가 약간 크다.’⁴⁶⁾, 『海東農書』의 ‘林檎은 來禽이라고도 하는데 柰보다 작고 둥글다.’⁴⁷⁾, ‘柰를 頻婆라고도 하는데 林檎과는 같은 무리이지만 품종이 다르다. 열매가 林檎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크다.’⁴⁸⁾, 『廣才物譜』의 ‘柰의 열매는 林檎과 비슷하지만 크다.’⁴⁹⁾, 『林園經濟志』의 ‘柰는 林檎과 비슷하지만 크다.’⁵⁰⁾ 『農政會要』의 ‘柰의 줄기와 잎이 林檎과 비슷하지만 열매가 약간 크다.’⁵¹⁾ 『五洲衍文長箋散稿』의 ‘柰는 頻婆라 하는데 林檎과는 같은 무리지만 품종이 다르다. 나무와 열매가 林檎과 비슷하지만 크다.’⁵²⁾ 등의 문헌을 살펴보면 『東醫寶鑑』의 柰에 대한 설명 중 ‘似林檎而小’는 ‘似林檎而大’로 바뀌어야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능금의 熟期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4>에 林檎(능금)이 음력 6월, 7월에 익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타당한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계절에 맞는 時物을 宗廟에 천신하는데 있어서 능금(林檎)은 6월에 한다.’⁵³⁾라 하여 과일이 알맞게 익었을 때를 음력 6월로 가리키고 있다. 현대 農學에 있어서도 능금나무(*Malus asiatica* Nakai)는 양력 7-8월에 3cm의 작은 원형의 과실이 달린다⁵⁴⁾고 하였으니 『東醫寶鑑』에 기술된 능금(林檎)의 熟期는 정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5> 柰의 형태에 대한 설명

東醫寶鑑(1613)	似林檎而小
鄉藥集成方(1433)	此有二種 大長者爲柰 圓者林檎
訓蒙字會(1527)	俗呼頻婆果 似林檎而大 (* 頻婆에 각각 木변이 있음)
本草綱目(1578)	柰與林檎 一類二種也 樹實皆似林檎而大
欽定授時通考(1737)	樹與葉 皆似林檎而實稍大
海東農書(1799)	柰亦名頻婆 與林檎 一類二種也 樹實皆似林檎而大
林園經濟志(1827)	樹實皆似林檎而大
農政會要(1830)	樹與葉 皆似林檎而實稍大
五洲衍文長箋散稿(1850)	柰亦名頻婆 與林檎 一類二種也 樹實皆似林檎而大
廣才物譜(미상)	樹實皆似林檎而大

능금과 재래종 사과(柰)의 효능을 비교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능금(林檎)의 효능은 『東醫寶鑑』에 ‘止消渴 治霍亂吐瀉 消痰止痢’라 하여 吐瀉霍亂에 응용할 수 있음⁵⁵⁾을 밝히고 있다. 또한 『閩閩叢書』에 ‘능금은 독이 없고 더위를 씻어 준다’⁵⁶⁾라 하여 柰의生津止渴하는 효능과 비슷함을 말하고 있다. 재래종 사과인 柰의 효능은 『東醫寶鑑』에 ‘益心氣 和脾 補中焦諸不足氣’라 하였

41) 許 浚 : 『東醫寶鑑』, 「柰子」, 在處有之 似林檎而小 多食令人腹<本草>
 42) 李時珍 : 『本草綱目』, 「柰」, 時珍曰 柰與林檎 一類二種也 樹實皆似林檎而大
 43) 李時珍 : 『本草綱目』, 「林檎」, 時珍曰 林檎 卽柰之小而圓者
 44) 俞孝通 : 『鄉藥集成方』, 「林檎」, 云 此有二種 大長者爲柰 圓者林檎
 45) 崔世珍 : 『訓蒙字會』, 俗呼頻婆 果 似林檎而大
 46) 鄂爾泰 : 『欽定授時通考』, 卷六十三, 「柰」, 樹與葉 皆似林檎而實稍大
 47) 徐浩修 : 『海東農書』, 「林檎 님금」, 林檎亦名來禽 卽柰之小而圓者
 48) 徐浩修 : 『海東農書』, 「柰」, 柰亦名頻婆 與林檎 一類二種也 樹實皆似林檎而大
 49) 『廣才物譜』, 「柰」, 樹實皆似林檎而大
 50) 徐有渠 : 『林園經濟志』, 「柰」, 樹實皆似林檎而大
 51) 崔漢綺 : 『農政會要』, 「柰」, 樹與葉 皆似林檎而實稍大
 52) 李圭景 : 『五洲衍文長箋散稿』, 「柰頻婆檳林禽辨證說」, 柰亦名頻婆 與林檎 一類二種也 樹實皆似林檎而大

53) 『朝鮮王朝實錄』, 太宗 十二年 八月 庚申, 命以時物薦宗廟 (中略) 六月林檎 茄 冬瓜
 54) 金正浩외 : 『三訂 果樹園藝各論』, 24쪽, 1995.
 55) 許 浚 : 『東醫寶鑑』, 「霍亂」, 林檎青色者 治霍亂吐瀉甚妙 煮取汁飲 或鬱食之<本草>
 56) 憑虛閣李氏 : 『閩閩叢書』, 「님금」 무독하고 적서 하나니라

는데 요약하면 『增補山林經濟』의 '補中和脾'로 요약될 수 있다.

개량종 사과인 蘋果(植果)가 165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이를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문헌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15년경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山林經濟』에서는 사과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판본에 따라 林檎, 柰의 기록이 없어⁵⁷⁾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1766년 『山林經濟』를 증보한 『增補山林經濟』에 林檎, 柰(땃, 농비), 植果의 특징이 각각 설명되어 있었으나, 1799년에 출판된 『海東農書』에서는 오히려 植果항목이 사라지고 柰를 '사과'라 번역하고⁵⁸⁾ 있으며, 『增補山林經濟』의 植果에 대한 설명⁵⁹⁾이 頭註로 柰를 설명하고 있으니⁶⁰⁾, 자생하고 있던 재래종 사과(柰)와 중국에서 수입된 개량종 사과(蘋果)를 같은 식물로 인식하여 서술하였다. 따라서 『海東農書』는 재래종 사과(柰)와 개량종 사과(植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겠다.(〈표1〉 참조)

『林園經濟志』에 의하면 『本草綱目』에 蘋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柰를 頻婆라 하였다. 『採蘭雜誌』, 『學圃餘疏』에 근거하여 보면 頻婆는 당연히 蘋果에 속한다. 따라서 蘋果는 柰와 같은 종류이지만 서로 품종이 다르다.⁶¹⁾라 하여 柰가 재래종 植果임을 밝히고 있다. 즉 植果가 柰의 개량종을 인식하였다고 하겠다.

원산지와 재배적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本草綱目』에 林檎의 원산지를 渤海, 즉 우리나라를 지칭하고 있으며⁶²⁾ 『林園經濟志』에

『羣芳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蘋果(사과)는 중국 동북지방(燕, 趙)産이 좋다.'⁶³⁾라 하여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적합한 식물임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閨閣叢書』에 사과는 '독이 없고 北道 사과가 유명하다.'⁶⁴⁾라 하여 일교차가 큰 내륙지역이 재배적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 農學에서도 사과는 8~11℃되는 비교적 冷寒한 기후에 적당한 온대 북부 과수로 서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산지도 기상상태가 특이한 대구지방을 제외하고는 남부보다는 일반적으로 연평균기온이 8~12℃ 전후인 禮山·忠州와 북부지방에 분포되어 있다⁶⁵⁾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과의 재배방법을 살펴보면, 『芝峰類設』(1614)에 모든 과일나무는 접을 붙일 수 있으며 씨를 심으면 도로 원래의 과실이 열리는 현상을 이해⁶⁶⁾하였기 때문에 사과가 들어왔을 때에도 접을 붙여 재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山林經濟』에 '사과는 丹杏, 流杏과 같이 종자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접을 붙이는 것이 좋다.'⁶⁷⁾라 하여 사과재배에 있어서 영양번식을 이용하고 있다. 저장법으로 『山林經濟』⁶⁸⁾에 능금을 이용한 병조림(통조림) 저장법이 소개되어 있어 저장기술의 발달을 엿볼 수 있다.

3. 山植와 사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少陰人 香砂養胃湯, 三白理中湯의 처방에 쓰이는 山植를 중국에서는 장미과에 속하는 山植 (*Crataegus pinnatifida* Bge. var. *major* N. E. Br),

57) 辛承云: 『고전국역총서 산림경제 1』, 『해제』, 11쪽, 1989.
三木榮本, 吳漢根本에는 植果만 있고, 韓獨博物館本에는 林檎이 추가되어 있고, 藏書閣本에는 林檎과 柰가 추가되어 있다.
58) 徐浩修: 『海東農書』, 卷之二, 「柰 = 사과」, 「林檎 = 능금」
59) 柳重臨: 『增補山林經濟』, 「植果」(前略) 例多蟲絲罍 枝條雖繁 率多枯死 以月經水 常常灌根 則無此患.
60) 徐浩修: 『海東農書』, 卷之二, 「柰」例多蟲絲罍 枝條雖繁 率多枯死 以月經水 常常灌根 則必無此患. 강조하는 뜻의 '必'만이 다를 뿐이다.
61) 徐有渠: 『林園經濟志』, 「蘋果」, 本草不載蘋果 而釋柰云一名頻婆 據採蘭雜誌 學圃餘疏 頻婆又當屬此果名 蓋與柰一類異種也.

62) 李時珍: 『本草綱目』, 卷三十, 「林檎」, 臟器曰 文林郎生渤海 問云 其樹從河中浮來 有文林郎捨得種之 因以爲名.
63) 徐有渠: 『林園經濟志』, 「蘋果」, 出北地燕趙者 尤佳.
64) 憑虛閣李氏: 『閨閣叢書』, 「植果」, 무독하고 북도 사과가 유명하니라.
65) 金正浩의: 『三訂 果樹園藝各論』, 24쪽, 1995.
66) 李晔光: 『芝峰類設』, 「果」, 果木無不可接者 至於瓠瓜 皆可接而成 此造化之理也 但接木所成雖美 其子種之 則乃生本果云 理亦然矣.
67) 洪萬選: 『山林經濟』, 「植果」 查果與丹杏流杏 皆不能種子 只直接移.
68) 洪萬選: 『山林經濟』, 「果實」, 收藏林檎 每一百箇內 取二十箇搥碎 入水同煎候冷 入淨瓷中沒之 密封瓷口 久留愈佳.(神隱)

野山楂(*Crataegus cuneata* Sieb et Zucc)를 사용하고 있지만⁶⁹⁾ 국내에서는 아가위나무, 야광나무, 동백, 이광나무, 뚱광나무 등을 산사나무로 사용하고 있다.⁷⁰⁾ 야광나무(*Malus baccata* B)의 경우 만주해당 또는 매주나무라고도 하며 사과의 대목으로 많이 이용한다. 사과나무속 식물 중에서는 봄에 가장 일찍 꽃이 피며 홍색으로 매우 아름답고, 과실은 환엽해당의 반 정도로 작으며 홍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山楂와 흡사하다.⁷¹⁾

붉은 열매와 흰 꽃을 사랑하는山楂는 붉은 태양이 떠서 환해지는, 즉 해뜨는 아침을 의미하는 뜻이 있다. 산에서 자라는 아침(旦)의 나무(木)라는 뜻⁷²⁾의山楂는 산 속에 붉은 열매가 있다는 뜻의山裏紅, 대추같이 붉다는 뜻의山棗紅(赤棗子⁷³⁾), 붉은 과자 같다는 뜻의紅菓子 등의 異名을 가지고 있다.⁷⁴⁾ 『本草綱目』에서는山楂라 표기하고 있는데 櫨子(명자꽃, *Chaenomeles lagenaria* Koidz.)와 맛이 비슷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⁷⁵⁾

山楂의 열매가 작은柰와 비슷하다는 기록⁷⁶⁾과 작은林檎과 비슷하다는 기록⁷⁷⁾이 『本草綱目』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도 서로 혼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山楂의 대응품으로 인식한 사과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槿果라 하였음은 매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근거에 따라 막힌 것을 뚫어주어 行氣시키는山楂⁷⁸⁾는 소음인의 陽煖之氣를 도와주는

작용을 하며山楂의 대응품인 능금이나 사과도 역시 소음인의 陽煖之氣를 도와준다고 볼 수 있어 少陰人 권장식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III. 결 론

林檎, 柰, 蘋果(槿果)를 통한 문헌학적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林檎은 '능금'(*Malus asiatica* Nakai), 柰는 '멧(멧)', 蘋果는 '사과'로 볼 수 있으며 蘋果(사과)는 柰(재래종 사과)의 개량종으로서 사실상 같은 식물(*Malus pumila* Mill)이다.

2. 1947년 이후 국어사전에는 사과를 沙果로 표기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독자적 한문인 槿果(査果)로 정정되어야 한다. 1654년 사과가 도입된 이래 약 300여 년간 槿果로 사용하였었고, 현재 중국에서 沙果는 능금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3. 능금과 사과가 일교차가 큰 내륙지역에 적합하며 우리 나라 중북부지역産이 예전부터 품질이 좋았음을 알 수 있다.

4. 少陰人 陽煖之氣를 도와주는山楂는 붉은 태양이 떠서 환해지는, 즉 해뜨는 아침을 의미하는 뜻이 있으며,山楂의 대응으로 작은 능금이나 사과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東醫寶鑑』의 柰에 대한 설명 중 '似林檎而小'는 '似林檎而大'로 바뀌어야 한다.

6. 『成宗實錄』에 나오는 沙果는 개량종 사과가

69) 新文豐出版公司 : 『新編中藥大辭典』, 中華民國 70年.
70) 李惟美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나라 백가지』, 50-51쪽, 1995.
71) 金正浩의 : 『三訂 果樹園藝各論』, 24쪽, 1995.
72) 高樹藩 :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745쪽, 中華民國 69年.
73) 李時珍 : 『本草綱目』, 「山楂」, 櫨狀似赤棗故爾 范成大廣衛志有赤棗子.
74) 林慶彬 : 『나무백과(2)』, 88-89쪽, 1982.
75) 李時珍 : 『本草綱目』, 「山楂」, 時珍曰 山楂味似櫨子 故亦名櫨 世俗皆作査字誤矣.
76) 李時珍 : 『本草綱目』, 「山楂」, (前略) 其子大如指頭赤色似小柰 可食 此即山楂也.
77) 李時珍 : 『本草綱目』, 「山楂」, (前略) 肥者 如小林檎.
78) 許 凌 : 『東醫寶鑑』, 「山楂子」, 아가의 消食積 化宿滯 行結

氣 消積塊痰塊血塊 健脾胃開膈 療癆疾 兼催癆痛 ○一名葉毬子 山中處處皆有之 生青熟紅 其半熟而酸澀者入藥 陳久者良 水洗 蒸軟去核曬乾用<入門>

도입되기 전이므로 '사과'가 아닌 '능금'으로 번역 되어야 한다.

7. 능금과 사과는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를 도와주는 식품으로 少陰人 권장식품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古書類

『廣才物譜』
 『南岡漫錄』
 『朝鮮王朝實錄』
 憑虛閣李氏 : 『閨閣叢書』
 徐有榘 : 『林園經濟志』
 徐浩修 : 『海東農書』
 鄂爾泰 : 『欽定授時通考』
 柳重臨 : 『增補山林經濟』
 俞孝通 : 『鄉藥集成方』
 李圭景 : 『五洲衍文長箋散稿』
 李晔光 : 『芝峰類設』
 李時珍 : 『本草綱目』
 趙在三 : 『松南雜識』
 崔世珍 : 『訓蒙字會』
 崔漢綺 : 『農政會要』
 許浚 : 『東醫寶鑑』
 洪萬選 : 『山林經濟』

** 新書類

Jean Carper, 안덕균역 : 『약이 되는 먹거리』, 1993.
 高樹藩 :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中華民國 69年.
 金正浩의 : 『三訂 果樹園藝各論』, 1995.
 金芝英의 : 「體質別 食品分類의 妥當性과 活
 用에 관한 小考」, 『사상의학회
 지』, 7권 1호, 1995.
 申琦澈의 : 『새 우리말 큰사전』, 1990.
 新文豐出版公司 : 『新編中藥大辭典』, 中華民國
 71년.
 辛承云 : 『고전국역총서 산림경제 1』, 1989.
 沈相龍 : 『漢方食療解典』, 1976.
 李盛雨 : 『韓國食品文化史』, 1997.
 李崇寧 : 『뉴에이스 國語辭典』, 1989.
 李崇寧 : 『삼화학습국어사전』, 1974.
 李惟美 :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나라
 가지』, 1995.
 李義柱의 : 「食品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
 지』, 7권 1호, 1995.
 李昌福 : 『大韓植物圖鑑』, 1982.
 李春寧 : 『한국農學史』, 1994.
 李熙昇 : 『民衆 艾센스 國語辭典』, 1975.
 林慶彬 : 『나무百科(2)』, 1982.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 『四象醫學』, 1997.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 1947.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 1992.